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의 김종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홍길 작가의

매우 수발한 작품

중편입니다.

'장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윤홍길이 주로 작품 활동을 했던,

많은 작품을 썼던 70년대는

그야말로 한국소설에서

황금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윤홍길은 이 시기의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나라가 경제발전을 통해서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고

그와 같은 고속도의 산업발달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빈부의 격차, 계층 간의 갈등

또 피폐한 농촌과 도시빈민의 문제

그러면서 이 외곽을

강고하게 둘러싸고 있는

유신체제의 정치적 폭압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산업화 현장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이끌고 가면서

소위 개발독재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전체적으로 풍요로움을

추구해 가는데 그 가운데서

피치 못하게 하층민들의 어려움

또 빈부격차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강한 국가의 권력은

일사불란한 체제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끌어갔으나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은

어쩌면 노동력을 수탈당하고

인권을 착취당하는

이런 급속한 산업 자본주의의 폐단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윤홍길은 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산업화 문제를
작품으로 다룬 작가들 가운데는

박완서, 오정희, 이문구, 황석영,
조세희 같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조세희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작품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황석영이 쓴 ‘객지’
‘삼포 가는 길’ 같은 작품

‘객지’는 한국문학에서

처음으로 노동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문구가 쓴 ‘우리 동네’ 같은
이런 작품들

이것이 모두 다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의

산업화 시대의 폐해를
다룬 작품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분단 상황이란 것이

점차 고착화되어 가고 있었죠.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후 문학의 여러 작품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60~70년대는
분단 상황이 심화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분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작가들에게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윤홍길의 ‘장마’ 도 그와 같은
분단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없을까

그런데 ‘장마’ 가 보여주는
어떤 해결 방향성이란 것은

그것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실에서 그것이 실현가능할까,
그렇지 않을까를 떠나서

그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현실보다 앞서가는
문학작품이

현실보다 앞서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가능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홍길의 소설 세계는
이처럼 산업화 시대의 문제

또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다른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홍길은 학교 교편을 잡고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루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축소된 사회의 모습

전상국이란 작가도
교사의 경험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작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체로 한 3가지 정도의
작품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장마’는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요
윤홍길의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홍길은 194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40년대 초반에 출생한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그에게 그대로 있었고

68년도에 ‘회색 면류관의 계절’이라는
작품으로 문단에 나온 이래

70년대와 8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확고한 위치를 가졌습니다.

중·단편 가운데 ‘장마’ 외에도

‘황혼의 집’ ‘제식훈련 변천 역사’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이런 작품들이 있고

장편으로 ‘목시의 바다’ ‘순은의 뉘’
‘완장’ ‘에미’ ‘뽕아도 아리랑’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름 있는 작품은 예컨대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
이런 소설이 있는데

교사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 직업이 없는 사내

소설의 중심인물입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지켜야 할 자존심도 없는데

구두 아홉 켈레를 아주 윤이 나게
반짝반짝 닦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 갈 때도 이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하나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긍심

또는 자기만족의 표상이 되는

언뜻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
별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 작품을 읽어보면

그와 같이 구두를 닦아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의 내면적 심리상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가의 작품들 가운데

단편으로 여러 가지 작품이 있고

단편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그 소설 제목을 보면

‘직선과 곡선’ 이런 것이 있고

‘빙청과 심홍’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비되는 것이죠.

직선과 곡선,
빙청이란 것은 얼어붙을 만큼 푸른색

심홍이란 것은 아주 깊은 붉은색
이런 것이죠.

이런 대비되는 개념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작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의 진행 방향을
함께 보여줍니다.

‘완장’이란 장편소설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저수지 독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
완장을 차게 되는데

완장을 차고 나서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단편 중에 ‘기억 속의 들꽃’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중에 한 소녀가 혼자 남게 되고

마을에 어떤 집에서

이 소녀를 키워주게 되는데

이 소녀가 말하지 않고

가슴 속에 숨기고 있는

아주 영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정말

반짝거리는 빛나는 문장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읽어보면

아, 이래서 윤희길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장마’ ‘황혼의 집’ 그리고 또 ‘집’

그리고 ‘양’ 이런 작품들

그리고 장편소설 가운데

‘에미’ 라는 작품

이런 작품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선을

소설 속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이 작가가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진한 아이의 시선으로
괴기스러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당시의 모순된 사회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에미’ 라는 장편소설은
어머니에 관한 얘기죠.

일본에 나카지마 겐지라는 작가와
윤홍길이 친했는데

그 작가가 ‘봉선화’ 라는

일본의 어머니를 보여주는
소설을 썼어요.

윤홍길이 한국의 어머니를 보여주는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쓴 것이 ‘에미’ 라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에미, 어머니는

한쪽 눈이 굶은, 그러니까 애꾸입니다.

그런데도 강력한 어떤 정신력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그 가정에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한 문학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미’를 통해서 윤홍길의
한국의 여인상

또는 어머니상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작품은 한국의 여신상을
보여주는 형국이 되었다.

어떨까요, 여러분?

과거 우리의 어머니들,
한국의 어머니들은

단순한 어머니들이 아니었죠.

온갖 간난신고를 헤치고
온갖 어려움을, 온갖 아픔을 딛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의지를 가졌던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이 곧 한국의 여신상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가능하겠죠.

이런 다양한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윤홍길의 작품

그중에서도 ‘장마’ 는
‘동만’ 이라는 어린아이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으로
친가와 외가가

외할머니가 친가에 와서
피난 와서 더부살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의 아들
외삼촌은 국군으로 나갔고

친삼촌은 빨치산으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맞서있는

그래서 한동안 잠잠하던 이 가정이
결국은 두 할머니의 대립으로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만의의, 어린아이의

초등학교 학생의 시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아이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이야기들을

이 작품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얘기하지만
이미 그 아이가 큰 다음에

그러니까 동만이 얘기가
“나는 그때 어린아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설에서는

회상 시점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제임스 조이스가 쓴
‘에리브 시장’ 같은

시장을 다녀오는 아이

그런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아이의 눈으로 보고 있으나

그것을 설명하는 화자는
작품 밖에 있는 어른인 거죠.

형사가 와서 집을 다녀간 삼촌,
빨치산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초콜릿을 주고
얻으려고 하고

동만이는 속아서 그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삼촌이 죽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날 구렁이 한 마리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렁이가 죽은 삼촌의
넋이 실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소설적 상황이 구성되고
외할머니가 나서서

이 구렁이를 뒷산으로
인도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누워있던, 아파서 누워있던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동만이라는

어린이의 경우에도

할머니와 화해를 합니다.

동만이는 “나도 할머니를 용서했다.”

이와 같은 어사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장마’ 라는 작품 속에서

분단 문제를 이런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생동하는 인물들의

가족 사랑이라는 문제로 충돌하게 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샤머니즘적 분위기를 빌려오지만

정동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여타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순식간에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이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이데올로기로, 논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감성으로, 인간애로, 가족애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이 작가의 하나의

결말의 방향이었습니다.

‘장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윤홍길이란 작가의
매우 빼어난 문장력입니다.

“어디든지 쿡 찌르면 물기가
배어 나올 것 같았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 작품의 끝은 길고 지리한
장마였다.” 라고 끝을 맺게 되는 것인데

장마라는 여름철의
이른데면 비 오는 시기의 현상을

남북문제, 또 분단으로 인해서

민족 간에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충돌하고 있는

그 어두운 시기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장마'는 여러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아야 할 작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